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

2012. 5

-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을 인상한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 ☞ 그 동안 정부의 산업용 편중 요금인상 결과로 2000년 이후 주택용이 4.1% 오르는 동안 산업용은 61%나 인상하였음
-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선진국보다 저렴해 산업용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 대비 비싼 실정임
- 우리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절감 기술과 효율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여도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비난만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한전이 언론에 밝힌 원가회수율은 2011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다르며, 특히 6.5%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6.9%p 하락하고, 동결된 주택용은 1.9%p 상승하는 등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신뢰가 떨어짐
- 산업계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하여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것을 정부에 건의함
 - ☞ 첫째, 산업용만이 아닌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함
 - ☞ 둘째, 용도별 원가회수율 자료를 제시하여 전기요금 인상 근거를 밝힐 것
 - ☞ 셋째,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할 것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한 국 중 견 기 업 연 합 회
한 국 철 강 협 회
한 국 조 선 협 회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한 국 석 유 산 업 연 합 회
한 국 시 멘 트 협 회
한 국 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대 한 상 공 회 의 소
한 국 경 영 자 총 연 합 회
한 국 자 동 차 산 업 협 회
한 국 전 자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회
한 국 비 철 금 속 협 회
한 국 석 유 화 학 협 회
한 국 화 석 협 회
한 국 제 지 공 업 연 합 회
한 국 주 물 공 업 협 동 조 합

1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비싸다

■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 등 선진국보다 저렴해 산업용 요금을 많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세계 주요국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역차별

□ 전기요금은 각 국가별 물가수준, 원자력·석탄·LNG 등 발전 연료 구성과 원료 자급도,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절대비교는 거의 불가능

○ 이에 국가간 전력요금 비교시 보조지표로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수준

☞ 한국의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5, 미국은 84 수준으로 한국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나타남

세계 주요국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핀란드
산업용	0.058*	0.106	0.154	0.121	0.068	0.095
주택용	0.083	0.157	0.232	0.199	0.116	0.175
산업/주택(%)	69.88	67.52	66.38	60.80	58.62	54.28
비율 비교	100	97	95	87	84	78

* 자료 : 201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IEA), 단위 : (\$/kWh)

* '※' 표시 데이터, 2009년 실적자료(인상분 미 반영) / 韓 2010년 산업용 인상분(5.8%) 반영하면 더 비싸짐

○ 특히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선진국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특별(자율)약관을 허용해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함

☞ 우리나라 기간산업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

2

산업용은 타 용도 전력에 혜택을 준다

- 일부에서 산업용, 특히 국가 기간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고압(154kV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09년 이후 산업용 교차보조 제공자로 전환. 타 용도의 전기요금을 지원

- 전기요금은 사용전압, 사용(부하)패턴에 따라 원가와 요금이 달라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판매단가와 원가를 비교하는 '원가회수율' 지표 사용
-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4.4%로 평균(90.9%) 및 주택용(86.4%) 대비 높은 수준임
 - ☞ 특히 기간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은 원가회수율이 95.2%로 매우 높음

2011년 12월 전기요금 인상률 및 원가회수율

구 분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용	가로등	평균	
		저압	고압	계	저압	고압	계					
인상률(%)	-	3.9	5.0	4.5	3.9	6.6	6.5	4.5	-	6.5	4.5	
원가회수율(%)	전	86.4	86.9	94.6	90.8	78.4	89.3	88.7	83.9	32.8	78.3	87.0
	후	86.4	90.3	99.3	94.9	81.4	95.2	94.4	87.7	32.8	83.4	90.9

*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12.2)

- 산업용 고압의 원가회수율이 평균보다 4.3% 높다는 것은 이 차이 만큼 타 용도의 전기요금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
 - ☞ 산업용 '09년 이후 타 용도에 교차보조 제공
 - ☞ 교차보조 추정 : 223억 원('09년), 1,149억 원('10년), 3,041억 원('11년)

2011년 용도별 교차보조 금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용
1~7월	89,820	261,368	91,035	△20,784	△449,896
8~11월	△17,959	147,436	134,637	△8,514	△265,874
12월	△33,839	41,156	78,418	△2,811	△74,563
연간	38,023	449,959	304,090	△32,109	△790,333

* 교차보조액 = (용도별 판매단가 - 용도별 원가 X 평균 원가회수율) X 용도별 판매량
 * △ 금액은 교차보조 수혜를 의미, 주택용에 심야 포함시 교차보조 수혜로 전환